

중국 연대 및 래주시 투자유치 위해 협회 방문

지난 6일 연대시 래주를 방문한데 이어 중국 연대시 래주시가 답방을 하였다.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그들의 동행 취재기를 신는다. /김영진 기자



▲ 협회 한동주 회장과 연대 주재시장



▲ 중국 연대 래주시 정부 관계자 및 한국석재협회 임원·회원 전체 기념 촬영

7월 8일
모자펑 국장(毛志峰, 萊州市對外經濟貿易合作局 局長), 유러홍 과장(劉瑞紅, 萊州市對外經濟貿易合作局 副局長), 진군성 주임(陳群生, 中國(萊州)國際石材工業城 招商發展局 主任) 세 사람이 오후 1시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지난달의 만남이 있었기에 더욱 반가운 만남이다. 그들과 내일 래주시를 일정을 맞기 위해 회의실 및 기타 제반 준비에 들어갔다.

7월 9일
비가 내리는 속에 임간녕 래주시 시장(林建寧, 萊州市人民政府 市長), 왕요하 부시장(王堯哈, 萊州市人民政府 副市長), 국수군 주임(國俊軍, 中國(萊州)國際石材工業城 主任), 마립권 주임(馬立平, 中國(萊州)國際石材工業城 總經理) 네 사람이 도착했다. 어제 먼저 도착한 세 명과 함께 그들을 맞으러 갔다. 저녁은 한국 음식을 접대하기 위해 구로에 있는 '송림가'를 찾았다. 화가에대한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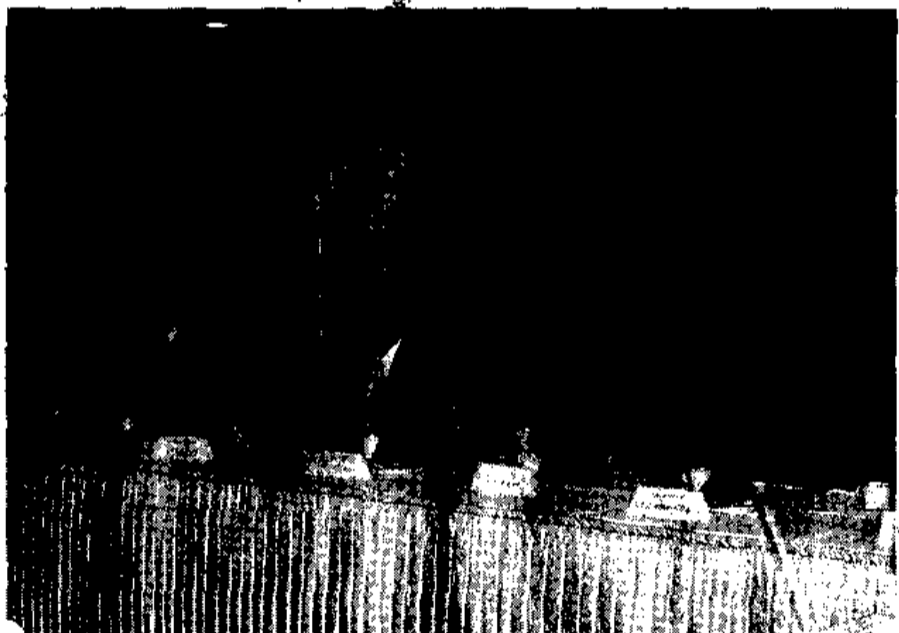
국과 중국의 석재산업이 동북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7월 10일
오전 8시 50분 주재 연대시장(周齊, 煙台市政府 市長), 이숙근 부시장(李淑君, 煙台市政府 副市長), 손연곤 주임(孫淵鰲, 煙台市外事辦公室 主任), 손승현 국장(孫承賢, 煙台市發展計劃局 局長), 윤국문 부비서장(尹國文, 煙台市政府 副秘書長)이 도착했다.

다. 그리고 9시부터 (사)한국석재협회 한동주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연대시장의 인사, 그리고 래주시장의 답사로 이어졌다. 8시 40분경 연대 일행은 다른 일정으로 자리를 뜨고, 10시부터 래주 일행과 김상태(조양석재)부회장, 박인철(세인석재), 윤이준(함양석재), 이재윤(동반석재), 이종현(성애석재), 윤영조(강남석재), 이동영(L.M Trading), 이근택(대한광업진흥공사 해외금융부장) 등 협회측은 중국 국제석재공업단지 내 한국석재단지의 투자 안전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 공항에서 래주 임간녕 시장의 한국행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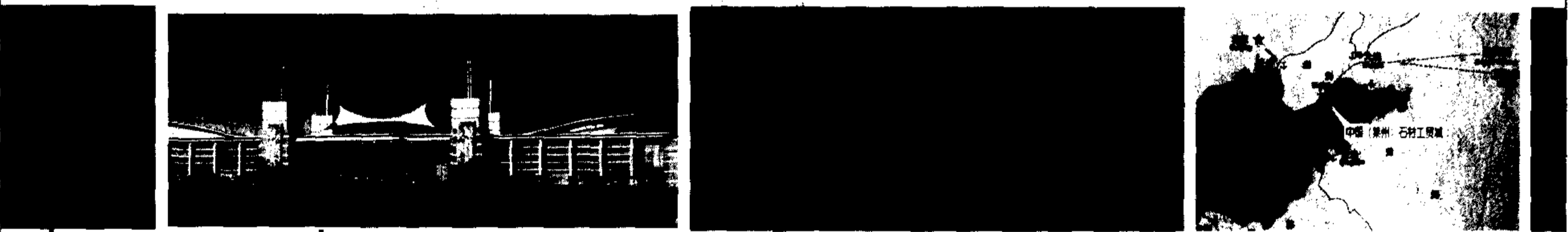


▲ 래주 투자에 대해 한·중 회의



▲ 중국 연대인송국에서 한동주 회장 인터뷰

중국 래주 국제석재단지 내 한국석재산업단지에 투자하십시오!



유리한 환경
편리한 교통
광물자원 풍부
우수한 석재품질
완벽한 기초시설

- ◆ 계약내용
1. 토지사용기간은 50년
 2. 토지사용방식 (인민폐 원/㎡)
 - 1) 매매식 임대
 - ▶ 2003년 6월~2004년 6월 이내 입주 기업 : 30원/㎡.
 - ▶ 2004년 7월 1일 이후 입주 기업 : 45원/㎡.
 - 2) 일반 임대
 - ▶ 토지사용 수속비(입주시 1회) : 13.5원/㎡
 - ▶ 2003년 6월~ 2004년 6월 이내 입주 기업 : 중국래주시석재공무성관리위원회 보조비 4.5원/㎡ 지급 (실제 납부액 9원/㎡)
 - ▶ 임대료는 매년 1.2원/㎡.

- ◆ 한국석재산업단지에 대한 세금 우대정책
- ▶ 기업소득세 : 기업 설립 후 이윤 발생 년도부터 2년까지 면제
이윤 발생 후 3년~5년까지 50% 면제
 - ▶ 지방세 : 토지사용세, 도시건설세, 교육부가세 기업경영기간내 면제

중국래주석재공무성(中國萊州石材公貿城)
한국연락처 (사)한국석재협회
TEL : 02-2168-4080
FAX : 02-2168-4090

“석산 채굴권 취득 후 기간 연장하며 채굴”

국내업체와 동일조건서 해외업체에 우선권 줘... 광산시추는 정부 지원안해

한중회담의 토의사항

1. 원석원료 공급 방법과 원석가격은 어떻게 책정되는가?

원석원료 공급에는 3가지 방법이 있다. 외국산물을 수입하여 가공하는 방법과 연대시정부 관리의 석산 원료 가공, 그리고 래주시정부의 석산 원료가공방법이 그것이다. 그리고 원석가격에 대해 정부는 관여하지 않는다. 현재 래주시추에 98개 한중합작기업, 200여개 국내 광산개발업체가 있으며 정부는 국내의 업체 모두 동일하게 대우하고 있다.

2. 하나와 석산에서 동일하지 않은 품질의 원석이 채굴되어 불합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때 가격이 상승하면 어떻게 하는가?

석산을 구매하였으나 채굴과정에서 원료의 질이 상할 경우 석산을 구매한 업체로서는 난처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한국업체는 중국의 원석 공급

처 여러 곳과 동시에 계약하고 한 개 회사당 A급, B급, C급으로 나눠 각각 몇 톤배씩으로 계약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이 계약이 위반될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계약을 하고 이를 위반할시 정부 측에서는 한국측 입장에서 일을 처리해 줄 것이다.

3. 중국업체와 계약할 경우 신뢰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국업체에게 래주시 무역성의 책임자에게 신용 있는 회사의 추천을 의뢰해도 좋을 것이다. 책임감 있고 정당한 회사를 우선적으로 연결시켜 줄 것이다.

국내와 업체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외국업체(한국업체)에 우선권을 준다.

4. 석산시추는 어떻게 진행되나?

한국은 석산이 사유재산으로 분류되나 중국은 국유이다. 따라서 각 시정부 소유의 석산을 개인업체가 개발하기 힘든 것은 사실이

다. 이점을 보완하기 위해 래주시 측에서는 각 층/층 등에서 직접적으로 석산계약을 할 수 있도록 석산관리 방법을 변경토록 하였다.

5. 석산은 어떻게 살 수 있나?

대부분의 중국 광산은 입찰을 통한다. 매번 하지 않고 임대식이며 중의가 함께 입찰할시 외국 측에 우선권을 준다. 1년에 한두번의 입찰이 이루어지며 입찰을 통한 임대 이후 3-5년동안은 채굴권이 보장된다.

한번 입찰에 3-5년 채굴이 일반적이지만 산동성의 정책이지만 외국업체가 입찰에 참여한다면 계속 연장하는 형식으로 10-20년까지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론 연장할 때마다 증서를 발부하므로 일정 정도의 비용을 내야한다.

그리고 입찰 일정은 우리 정부 측에서 미리 한국기업측에 알려 우선권을 주도록 하였다.

6. سنگ계약기간은 얼마나 되나?

광산시추는 정부측에서 지원해

주지 않는다. 한국업체측에서 직접 시추를 통해 광산을 계약할 경우 반영구적으로 채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개발된 석산을 입찰 방식을 통해 채굴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3-5년마다 갱신하는 형식으로 반영구적으로 채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7. 래주시에서 현재 채굴되고 있는 원료는 한국시장에서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은데...

북경성의 603이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만한 것이 365이다. 603시장을 노리기 위해서는 365의 가격인자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부측에서는 가격을 정할 수 없고 대부분이 유럽쪽으로 모두 수출되고 있는 만큼 365의 가격인하는 쉽지 않다.

8. 동의회자가 가능한가?

이미 개발 중인 중국의 석산을 한국업체가 자본 참여하는 식으로 할지할 수 있다.

환영사



(사)한국석재협회 한광주 회장

안녕하십니까?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협회까지 친히 방문해주신 연대 주재 시장님, 이숙근 부시장님 및 래주 임건녕 시장님, 양표하 부시장님 외 함께 오신 중국의 많은 분들과 저희 협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대시정부 주재 시장

존경하는 한회장님!

한때 중국인의 발을 묶은 SARS 이후 처음 해외출장 오게 된 곳이 바로 한국이며 연대시는 깨끗한 지역이라 이번엔 SARS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난 8월 여러 시장님들과 함께 연대시를 방문 해주신데 감사드리고, 중국과 한국은 가까우면서도 밀접한 나라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7월 7일 한국의 노무현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 관계는 돈독해질 것이며, 경제 또한 더욱 활성화 되리라 믿습니다.

한회장님 및 석재협회 시장님들의 연대 방문을 환영합니다. 중국의 연대는 개방도시로 많은 외국계 회사가 수익의 1/3을 재투자 할 정도로 투자 가치가 높은 경제도시입니다.

저는 한국과 연대가 합작하기에 좋은 파트너라 생각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석산이 많은 연대시에선 석산채굴권 취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달 한국석재협회 임원이 래주를 방문한 후 한달이 지나 다시 연대시 및 래주시에서 양국의 교류를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였고, 이에 우리는 오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합작의 의미를 다시 돌아보고 서로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중회담을 통해 양국의 이해를 더욱 깊어하고 지금까지 다져온 우의를 돈독하게 되기를 또한 바라아지 않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과거부터 문화, 풍습 및 의도가 비슷하고,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7월 7일부터 오늘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여 한-중간은 더욱 친한 친구의 나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주시는 연대시 주재 시장님과 이숙근 부시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발전을 하고 있으며, 국가 정부기관은 한국 기업에 실적이 높아 한국기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산 핸드폰도 우수할 뿐 아니라 대기업인 대우, LG 등도 연대에 투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연대시는 중국이 WTO가입한 것이 양국발전계기가 되고, 또한 산동성의 발전과 중국의 발전에 있어 연대가 고무로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산동성에서는 중국-일본-한국계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기업의 투자에 대해 관심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석재협회는 석재업계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석재협회가 저희 중국석재협회의 건실한 관계를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두 나라의 활발한 교류는 돈독함을 더했습니다. 래주의 지역과의 석산자원에 한국의 가공기술과 관리능력이 더해진다면 더없이 좋은 결과가 나타날리라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내 많은 한국업체가 참가하여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 투자하기 좋은 재반조건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석재협회 시장님들, 연대시 래주에 마음놓고 투자하실 수 있게 하였습니다. 래주를 기반으로 작게는 아시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업으로, 크게는 한국석재대지를 세계도처에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동원한 관심을 유지하고, 여러분들 모두 부디 적극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양국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래주시 한국석재산업단지 투자정책>

중국 연대시 래주시 국제석재단지 내 한국석재산업단지 유치에 관련, 이해를 돕고자 지난호에 실린 기사중 '투자정책'을 다시 실는다.

중국 래주시 한국석재산업단지의 토지정책은 두 가지로, 첫째는 일괄 토지임대 방식으로 2002년 6월에서 2004년 6월 이내 입주시 인민폐 30원/㎡이고, 2004년 7월부터는 인민폐 45원/㎡이며 사용기간은 50년으로 한다. 둘째, 매년 임대 방식은 인민폐 1.2원/㎡를 내야 하며, 2004년 6월이내 입주시 중국 정부의 4.5원/㎡의 보조비가 지급된다. 전자는 일도나 담보 및 저당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후자는 금지된다.

세금정책으로는 투자기업이 흑자가 발생된 년도부터 2년간 기업소득세가 면제되며, 3년부터 5년까지는 50% 감면 혜택이 있으며, 지방세인 토지사용세, 도시건설비, 교육부가세가 기업 경영기간내 면제된다. 광산개발 정책은 외국기업도 광산을 매입할 경우에 한해 국내기업과 동일한 조건으로 광산개발권에 참여할 수 있다. 매입과 동시에 광산채굴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매입 범



위내에서 자유로이 채굴과 개발이 가능하다. 토지 사용면적 제한은 없으며, 투자금은 66만달러 이상으로 공동출자 가능하고, 3년 내 자본금이 풀려오며, 현금 뿐 아니라 이미 한국에서 사용중인 실비나 기저에도 투자금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건축도면은 한국측의 의견대로 건축하며, 중국에서 공장용 지고 이에 대해 3년 분할상환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토지 - 50년 일괄임대방식과 보조금 지급 매년임대방식
세금 - 흑지발생 후 2년까지 소득세 면제, 5년까지 50% 감면
국내 기업과 동일조건으로 광산개발

도로, 전력(교양선, 수전반 포함), 용수, 배수, 폐수(중앙처리식), 통신, 에너지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할 것이며, 중국 은행의 담보자산의 전액대출과 저당자산의 자산재평가 후 70% 대출, 신용은행 상품 규정 부합시 무담보 대출이 가능하며, 대부분이 1년 거치 상환이다.

관리, 기술, 생산직 등의 인력수급 및 석재산업 전반의 정보는 수시로 협조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한국 정기거주자에 대한 치안과 장기거주 권리를 제공한다. 산동지역 및 국내 전선전화 및 도소매시장 진출이 가능하고, 다른 산업과 달리 중국 내 수 시장 진출에 있어 비율에 따른 제한 없이 자유로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창조하여 찬란한 내일을 여는 정뢰석재

정뢰석재는 중국석조공의 고상한 예술성 계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4년 정뢰석이 석조공의 전통공예기술을 계승함과 동시에 「정실과 신뢰가 미래를 창조한다」는 이념으로 100여명의 전문생산 기술인원과 선진기계설비의 결합으로 구분이 노력하는 기업으로써 석재전문기업체로 자리잡았습니다.

각종 묘여, 남관당, 남관관, 불상조각, 정린조각조각, 정경석재 등을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정실적일·신뢰적고」라는 특수영역으로 고역적 믿음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공임없이 노력하여 석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정뢰석재(정뢰석)

회사: 중국 북경성 허베이 문명로 관도리빌 64-401

TEL: 86-592-2961871

FA: 86-592-2962351

E-mail: guanghui_kim@yahoo.co.kr

공정: 중국 북경성 허베이 문명로 관도리빌 64-401

TEL: 86-592-2961871/7670535

FA: 86-592-2962351